

1994년 조선예술 음악관련 기사 살펴보기

1994년 조선예술의 음악관련 기사들은 김일성의 사망이라는 시기적 이유로 1호부터 8호, 9호부터 12호의 두 부분으로 나뉘볼 수 있다. 즉, 전반기에는 대체로 김정일과 관련된 《당신만 있으면 우리는 이긴다》,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 등의 노래들이 소개된 반면, 9-10, 11-12 합본 호에는 김일성을 추모하는 《우리 수령님》, 《위대한 그 영상 영원하리》의 노래를 노래해설이나 평론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하였다.

《당신만 있으면 우리는 이긴다》는 보천보전자악단에서 창작한 노래이며, 1993년에 북으로 송환된 비전향장기수 리인모가 가사를 노래한 것이다. 그런데 이 노래는 리인모가 “40여년동안 미제와 그 괴뢰들의 악형속에서 살아온 실지 체험한 생활의 인생관을 사실 그대로 쓴 것”이다.



그리고 조선예술 1994년 6호에는 리인모가 작사한 《신념과 의지의 찬가》도 실려있는데, 이 노래는 “인생관의 가장 기본문제인 혁명적수령관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사상예술성이 높은 음악적형상으로 깊이있게 펼쳐보임으로써 노래가 가지는 감화력과 생활력은 자못 큰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 가사는 다음과 같다.

죽어도 정녕 못 버릴 나의 신념 그것은
김정일장군님께서 주신것입니다.
당신은 강하십니다 언제나 이기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늘 신념의 화신입니다

숨져도 꺾이지 않을 나의 의지 그것은
김정일장군님께서 주신것입니다
당신은 강하십니다 언제나 이기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늘 의지의 화신입니다

이 두 곡은 모두 비전향장기수였던 리인모의 경험을 노래로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을 찬양하고 있는 점이 이색적이다.

김일성 사후인 9-10호에는 “한평생 인민의 행복을 위해 바쳐오신 크나큰 로고에 대한 진실한 형상 -가요 <우리 수령님>에 대하여”라는 글에서 “노래는 인민을 위한 아버지수령님의 한평생을 진실하게 노래하면서도 오직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오시는 수령님께서 한순간이라도 편히 쉬시옵기를 바라는 우리 인민들의 절절한 심정의 분출, 아버지수령님의 사랑과 배려에 보답하려는 충성의 맹세를 음악적으로 격조높이 구가하고있다.”고 하면서 김일성을 그리는 노래를 소개하였다. 또한 11-12호에서는 “아버지수령님을 마음속에 길이 모시려는 다함없는 신념의 노래 -가요 <위대한 그 영상 영원하리>에 대하여” 역시 김일성 사후에 김일성에 대한 추모의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이다. 그러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칭송한 가요명곡들의 사상예술적특성”과 “수령복을 누리는 인민의 찬가-가요<우리의 김정일동지>에 대하여”와 같이 김정일을 추앙하는 노래를 연이어서 소개하고 있어 수령에 대한 그리움속에 머물러 있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1994년 하반기에는 음악분야에서 김일성의 사망에 대하여 구체적인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김정일 『음악예술론』을 실제 음악에 적용하고 이론을 실제로 이루어내는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죽관악기에 손풍금을 배합한 반주형식에 대하여”라든지, “우리 식 경음악의 주체성을 과시한 공연-왕재산경음악단의 공연을 보고”, 그리고 “피아노 조기교육과 독연가 육성” 등을 보면, 김정일의 『음악예술론』의 작곡, 연주, 그리고 음악후비육성이라는 내용에 들어맞게 기사를 작성하고 있다.

“죽관악기에 손풍금을 배합한 반주형식에 대하여”를 보면,

죽관악기에 손풍금을 배합한 반주형식은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사상을 기악음악창조에 구현한 특색있는 기악반주형식이다. ... 일반적으로 죽관악기와 손풍금은 색깔이 잘 융합될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것은 죽관악기는 무황발음원체계로 되어있으므로 소리가 부드럽고 연약하지만 손풍금은 자유떨기발음체계로 되어있으므로 소리가 매우 예리하고 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두 악기를 적절히 배합한 결과 색깔이 묘하게 맞으면서 독특한 음색이 얻어졌다. ... 죽관악기에 손풍금을 배합한 반주형식의 우월성은 우선 민족악기를 위주로 하면서 양악기를 적당히 배합함으로써 우리 인민들의 미학적정서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할수 있는 반주형식이라는것이다.

라고 하여 죽관악기와 손풍금이 융합될 수 없는 악기임에도 불구하고 민족악기를 위주로 하면서 양악기를 적당히 배합하여 인민들의 정서를 반영하는 반주형태를 새롭게 창조했으며, 이는 김정일 『음악예술론』의 민족악기를 우위로 한 양악기의 복종이라는 것과 일치한다.

1994년 조선예술의 음악분야에서 특이한 점은 음악에서 민족적 형식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민족음악을 시대와 인민의 요구, 지향에 맞게 발전시킨 우리 식 경음악”, “민족적정서와 현대적미감이 옹기 구현된 기악작품-가야금독주곡<초소의 봄>에 대하여”, “민족적정서가 풍만하게 흘러넘치는 음악회-공훈예술가 김영도음악회를 보고”, “민족장단과 현대장단을 다양하게 활용한 우리 식의 전자음악” 과 같은 글에서 찾아볼 수 있다.